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광중* · 강창화** · 김일우*** · 김종찬***

〈 목 차 〉

1. 머리말
2.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
3. 주민 생활 속의 한라산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4. 한라산의 고사찰(古寺刹) 존자암(尊者庵)과 수행굴(修行窟)
 - 1) 한라산 영실(靈室)의 고사찰 존자암
 - 2) 한라산 영실의 수행굴
5. 제주도 동굴유적의 분포와 성격
 - 1) 동굴유적의 분포
 - 2) 동굴유적의 입지 및 유형
 - 3) 동굴유적의 성격
6. 맺음말을 대신하여 :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 유산적 가치
abstract

I. 머리말

한라산은 제주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인 동시에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근원적 존재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제주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한라산은 제주도이고

* 제주교육대학교 부교수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1) 정광중, 2004, 「시론 —한라산 예찬론—」, 제주일보, 5월 17일자, 제18면.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란 표현²⁾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주민들에 있어서 한라산은 상징성을 내포하는 신적(神的)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을 떠받치는 모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인문 환경적 측면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이미 한라산 주변부인 해발 600m 이상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또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800~1300m)의 지정, 나아가 2002년 유네스코에 의한 한라산생물권보전지구 지정 등등이 입증해 주고 있듯이,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이 자연 생태적이나 자연 환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은 결코 자연 생태적, 혹은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라산은 제주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支柱)이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자원을 조달하는 원천(源泉)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라산 자락에 해당하는 광활한 중산간지역은 농목업적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돼온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산활동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경제의 기본 골격이었음은 새삼 거론할 여지도 없다.

본 연구도 한라산은 제주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따리를 틀고 있는 존재임을 주목한 뒤,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일환으로서 인문 환경적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가지 난제(難題)는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설정 문제이다. 다시 말해, 한라산의 주변지역을 어느 지점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점은 궁극적으로 한라산체를 어느 지점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범위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크게 3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논의하다 보니 공간적인 범위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더욱이 제주주민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안지역까지도 폭넓게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단지,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라산의 주변지역은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지역구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산간지역까지로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동굴주거 유적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이 제주도 전체를 배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2) 강정호, 2003, 『한라산』, 돌베개, 180쪽.

2.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

제주도는 화산활동을 통해 형성된 섬으로서, 전체적인 지형적 특성은 섬 중앙에 솟아있는 한라산에 의해 지배되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섬 자체가 한라산으로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곧 제주주민들의 생활기반의 구축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다시 말해, 선사시대로부터 제주주민들은 특히 한라산의 산세가 약해지는 중산간 지역과 해안지역을 주로 점유하여 마을과 농경지를 조성해 왔고, 나아가 섬 주변의 청정해역에 의지하며 생활하는 형태를 탄생시켰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인문지리적 특성은 곧 제주도의 인문지리적 특성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인문지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인문지리적 요소를 부각시켜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의 지리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서남단 동중국해 상에 위치하며 전라남도 목포와는 약 142km(직선거리, 이하 동일), 부산과는 약 287km, 일본의 쓰시마(對馬島)와는 약 255km, 큐슈(九州)와는 약 265km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와는 약 420km 정도 떨어져 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일본의 큐슈지방, 서쪽으로는 중국대륙, 남쪽으로는 일본의 류큐제도, 타이완 및 필리핀, 북쪽으로는 한반도와 마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대륙 혹은 대륙과 도서를 잇는 해양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주도의 면적은 1831.6km²(부속도서는 전부 제외)로서 한국 전체면적(99,746km²)의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255.6km²(제주도 전체면적 중 14%), 서귀포시 254km²(동 14%), 북제주군 708km²(동 39%) 그리고 남제주군이 614km²(동 33%)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2시 2군 7읍 3면(우도면·추자면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대체적으로 산북지역은 제주시와 북제주군(4읍 1면)으로, 산남지역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3읍 2면)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대수와 인구수에서는 2002년 12월 현재 186,707세대의 547,209명(부속도서인 우도면·추자면은 제외, 2002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나타나며, 남녀의 인구수에서는 같은 해에 남성이 271,938명, 여성이 275,271명으로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3,33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2002년 시·군별 인구수는 제주시 290,664명, 서귀포시 84,862명, 북제주군 98,183명(우도면·추자면 제외), 남제주군이 75,960명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특징으로는 해마다 제주시 방면으로 인구의 사회적 이동현상이 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제주시가 제주도의 중심도시로서 행정, 문화, 경제, 교육 등의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어서 한라산 주변지역의 취락과 문화시설의 분포실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표 1〉). 제주도가 국토개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년)에 의하면, 중산간지역(해발 200~600m)에는 크고 작은 32개의 취락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³⁾. 이들 32개의 취락은 대부분이 10~20호로 구성된 자연취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취락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 960ha이다. 이들 취락을 행정구역별로 분포실태를 보면 제주시 7개, 서귀포시 3개, 북제주군 17개, 남제주군 5개로 집계된다. 더 나아가 북제주군의 취락은 애월읍 7개, 한림읍 2개, 조천읍 4개, 구좌읍 4개로 구성되며, 남제주군은 5개 모두가 안덕면에 속해 있는 취락들이다.

이처럼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이라는 전제를 배경에 두고 중산간지역의 취락 분포를 검토해 보면, 산남지역(18ha, 18.7%)보다는 산북지역(78ha, 81.3%)에 더 많은 취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시 산북지역 내에서는 북제주군의 동부지역(16ha)보다 서부지역(43ha)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락이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고별로 취락지구의 면적분포를 보면, 전체 960ha의 면적 중 해발 200~300m 사이가 71ha, 300~400m 사이가 20ha, 400~500m 사이가 2ha, 그리고 500~600m 사이가 3ha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으로 유추할 때, 현재 한라산 주변지역에서 취락입지의 한계선은 대략 400m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발 400m 이상 지역이 아직까지는 제주주민들의 손길이 덜 미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파괴나 오염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 내의 교통은 오로지 도로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의 도로 총 연장은 2,619.1km로서 8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 종류별로 검토해 보면, 일반국도 4개 노선 426.2km(2000년도 시점에서는 서부관광도로가 제외됨),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64.4km, 지방도 8개 노선 177.3km, 시·군도 1918

3)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84쪽.

〈표 1〉 중산간지역 내 지역별·표고별 취락분포 실태

(단위 : ha, %)

지역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동부	서부	소계	동부	서부	소계	
면적(ha)	190	20	160	430	590	10	150	160	960
비율(%)	19.8	2.1	16.7	44.8	61.5	1.0	15.6	16.6	100.0
표고별	200~300m		300~400m		400~500m		500~600m		합계
면적(ha)	710		200		20		30		960
비율(%)	74.5		20.8		2.0		2.7		100.0

(출처 :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85쪽. 〈표 II-3-14, 15〉를 일부 변형하여 인용함.)

개 노선 1951.2km로 확인된다⁴⁾.

제주도내 도로의 점유율은 한라산 방향으로 해발고도를 더해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근래 약 20여 년 사이에 행해진 중산간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로가 많이 개설되었거나 혹은 기존도로가 확장된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듯이 한라산 등반로 중 특정구간을 케이블화 하려는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신청·지정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라산 주변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는 먼저 일반국도인 5·16도로(11호선 국도)와 1100도로(99호선 국도)가 있다. 이들은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시발지와 종착지로 하고 있으며, 두 도로가 일부구간에서 한라산 국립공원 내를 통과하고 있다. 특히 5·16도로는 1932년에 한라산 기슭을 가로지르며 서귀포까지 임업용 도로로 개설한 것이 근간이 되었다⁵⁾. 이 도로는 2~3년 전에 도로의 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환경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주춤해 있는 상황이다. 서부관광도로(95호선 국

4) 제주도, 2001, 『제주행정지도』내〈도로현황〉.

5) 서귀포시, 2001, 『서귀포시지』(하권), 서귀포시, 425쪽.

도)는 2002년 12월에 도로 확장 공사(왕복 4차선)가 마무리되면서 국도로 승격되었는데, 이 도로가 관통하는 구간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약 580m이다. 서부관광도로는 최초 중산간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1967년경부터 확장·보수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에 이르러 첫 단계인 29km 전 구간이 완전 포장되었다.

서부관광도로와 함께 자웅을 겨루듯 그 역할을 담당해온 동부산업도로(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부산업도로는 서부관광도로와 함께 공로(公路)로 사용된 제주도 도로의 효시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도로 역시 1967년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되어 1989년에 이르러서야 개통될 정도로 제주주민들의 애환이 깃들여 있는 도로이다⁶⁾. 이 동부산업도로의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360m 부근에 이른다.

한라산 주변지역의 주요 지방도로는 조천과 남원을 잇는 남조로(1118호선), 한라산 북서사면을 연결하는 제1산록도로(1117호선) 및 한라산 남서사면을 연결하는 제2산록도로(1115호선)가 있는데, 이들 도로는 중산간지역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 남동사면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서성로(1119호선)도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한라산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자림로(1112호선)이다. 비자림로는 제1횡단도로(개월오름과 물장울 사이의 해발 620m 지점)에서 구좌읍 세화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 양옆으로는 삼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는 억새, 오름, 들판 및 꽃자왈 등도 곳곳에 널려 있어 자연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2002년도 건설교통부가 선발한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도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라산 주변지역에는 시·군도도 많이 개통돼 있다. 이 중에서도 한라산 정상부에서 가장 가깝게 개통돼 있는 도로가 서귀포시 지역 내의 1100도로에서 한라산국립공원 내 영실산장까지 연결되는 시도(市道)이다. 이외에 취락이 한계선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해발 400m 이상 지역의 시·군도는 2시 2군 지역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유달리 제주시와 북서지역 방면(애월읍 및 한림읍)에서 뺏어져 나온 도로들이 확연히 눈에 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한 경제활동의 영향력이 많이 반영

6) 서귀포시, 2001, 앞의 책(하권), 432쪽.

된 결과라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중산간지역 주요시설의 분포실태를 보면(제주도, 1997,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전체 216개의 시설 중 해발 200~300m 사이에는 114개(전체 52.8%), 300~400m 사이에는 61개(28.2%), 400~500m 사이에는 29개(13.4%), 500~600m 사이에는 12개(5.6%)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조사는 1997년도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표고별로 다소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설별로 점검해 보면, 산업시설이 96개로 단연 앞서고 있고, 다음이 서비스시설로 69개, 그리고 문화·교육시설은 36개로 3위에 랭크되고 있다. 결국 전체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가지 발견해 낼 수 있다. 그것은 해발고도를 더해 갈수록 여러 시설들의 입지가 떨어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취약형성이 어려운 지역, 즉 해발 400m 이상 지역에도 산업시설과 서비스시설 및 문화·교육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입지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은 차후 이들 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관련업종의 사람들이 점유하는 공간도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이들 시설은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왕래를 전제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대비해 볼 때는 여러 시설들이 산남지역보다도 산북지역에 더 많이 치우쳐서 입지하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제주시의 경우는 문화·교육시설이 36개 중 17개(47%)로 많이 입지해 있으며, 북제주군의 경우는 산업시설 96개 중 48개(50%), 서비스시설 69개 중 37개(54%), 행정기관 8개 중 5개(63%), 그리고 의료·후생시설 7개 중 4개(57%)가 중산간지역으로 진출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정광중)

3. 주민 생활 속의 한라산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예나 지금이나, 한라산은 주민 생활에 자원을 제공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고, 신앙행위의 대상으로서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존재이다. 한라산과 주민 생활의 관계는 아

7) 제주도, 1997, 앞의 책, 219~220쪽.

주 오랜 옛날부터 생겨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음은 각종 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이라는 명칭이 기록에 드러나는 것은 조선시대 태조(太祖) 6년(1397) 권근(權近)이 지은 응제시(應制詩)가 가장 이르나⁸⁾, 1374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 즉, 고려 말 최영(崔瑩) 장군이 제주도 몽골족 목호세력(牧胡勢力)의 반란을 평정하러 왔던 공민왕(恭愍王) 23년(1374)에 군대를 '漢擎山' 아래 주둔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⁹⁾. 또한 한라산은 은하(銀河)를 끌어당길 만큼 높다는 연유로 1481년 이전에 이미 붙여진 호칭이나, 봉우리가 평평하고, 둥근 탓에 두무악(頭無岳), 혹은 원산(圓山)으로 일컬어져 왔었던 일도 기록되어 있다¹⁰⁾.

한라산이 오늘날과 같은 명칭으로 일컬어졌음이 확인되는 시기는 14세기 후반 무렵부터이다. 그럼에도, 한라산이 주민 생활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였다.

고려는 건국 초창기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앙 행위로서 산천숭배(山川崇拜) 등이 성행하고 있었다¹¹⁾. 이후 일부 산천은 사전(祀典)에 올려져 국가제사가 거행되었다. 이들 산천의 신(神)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한번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호(號), 다른 한번은 '제민(濟民)'이라는 호도 더해졌다¹²⁾. 여기에는 탐라의 신도 해당되었음이 특기되어 있다. 그리고 탐라의 신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천의 신이며, 그것은 제주도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우뚝 솟은 한라산의 신을 지칭하였음이 틀림없다. 이는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될 만큼, 오랜 옛날부터 제주의 많은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호종단(胡宗旦) 설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¹³⁾.

호종단은 1106년~1146년경에 걸쳐 고려의 벼슬을 지냈던 실재의 인물이다¹⁴⁾. 호종단 설화는 호종단이 제주에 와 지기(地氣)를 눌렀기 때문에 한라산신의 동생에 해당하는 신의 노여움을 받아 죽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⁵⁾. 또한, 조정(朝廷)에서는 그

8)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 3월 신유(辛酉)조.

9) 『고려사(高麗史)』 권 113, 열전(列傳), 최영전.

1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濟州牧), 산천(山川)조.

11)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187~190쪽.

12) 『고려사(高麗史)』 권21·24, 세가(世家), 신종(神宗) 즉위년 11월·고종(高宗) 40년 10월조.

13) 현길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67~108쪽.

14) 김일우, 2000, 앞의 책, 201~202쪽.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사묘(祠廟)조.

신령스러움을 포상해 토지를 줌과 아울러 광양왕(廣壤王)이라는 작호(爵號)도 주고, 해마다 향과 예물을 내려주어 제사를 치르게 했다고도 한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한라산에 대한 신앙적 행위는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때 한라산은 제주도를 수호하는 진산(鎭山)으로 인식되는 한편¹⁶⁾, 제주목의 남쪽에 자리잡은 한라호국신사(漢拏護國神祠)에는 광양당(廣壤堂)이 마련되어 있었다¹⁷⁾. 여기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무속적(巫俗的) 형태의 제사를 거행했다¹⁸⁾. 이때 가장 으뜸이 되었던 숭배대상이 한라산신이었다. 기근이나 흉년, 혹은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도 한라산에 대한 치제(致祭)가 이루어지곤 하였다. 또한 조선정부는 한라산을 사전(祀典)에 올려 정기적으로 국가제사를 거행하였다. 이때도 민가(民家)와 관가(官家) 모두 한라산을 신앙적 숭배대상으로 섬겼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는 한라산 정상 백록담(白鹿潭) 주변에서 치러졌다. 그러던 중 제단(祭壇)이 1470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약동(李約東)에 의해 산천단(山川壇)으로 옮겨졌다¹⁹⁾. 이약동은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많은 주민이 백록담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얼어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단을 산천단으로 옮겼다. 그럼에도, 한라산신제는 계속 백록담 주변에서 치러졌던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에도 매년 정월 초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주민들은 산천단 곰솔나무 밑 한라산신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또한 제주의 가장 큰 축제인 탐라문화제도 산천단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제일 첫 의식으로 삼는다.

한편, 한라산은 제주도 각처에 산재한 신당(神堂)의 당신(堂神)들을 하나의 혈연적 계보로 묶어 파악할 만큼, 많은 당신이 공유하는 공통의 출생처임이 당신본풀이에서 드러난다²⁰⁾. 이들 당신본풀이는 신당에 좌정한 신들의 내력이 구전을 통해 전해진 것이며, 이들 당신은 당신앙의 숭배대상이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연원은 섬이 되고 난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 때부터 생겨났을 원초적 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신본풀이의 내용이 무속적(巫俗的) 문화배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이해

16)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제주목조.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사묘(祠廟)조.

18) 강정식, 2002, 『제주도(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2~25쪽.

19)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권1, 단묘(壇廟)조.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제주시의 옛터』, 250~252쪽.

20) 강정식, 2002, 앞의 논문, 46~106쪽.

할 수 있다. 때문에 한라산이 주민들의 숭배대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도 당신본풀이의 연원과 때를 같이했다고 보아진다. 즉, 한라산이 신앙적 숭배대상으로 섬겨지기 시작한 것도 무속적 신앙이 생겨났을 고대사회 이전부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라산은 신격화(神格化)가 이루어진 고대사회 이전, 즉 상고시대(上古時代)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을과 개인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한편, 제주 지역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수호신으로도 인식되어 제주 사람들의 숭배대상으로 섬겨져 왔다고 하겠다. 또한 고려시대에 와서는 한라산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져 국가제사가 거행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나아갔다.

한라산은 주민 생활과 그 인식에 하나의 준거 틀로 작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은 제주도 지역에서 우뚝 솟아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중심점이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197개에 달하는 제주도의 행정동(行政洞)과 행정리(行政里) 가운데 단 두 곳, 즉 고내리(高內里)와 대평리(大坪里) 지역의 마을에서만, 한라산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제주도의 지형과 지세는 한라산의 화산폭발 이후 갖추어졌다. 이에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 정상부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해안가에 이르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실화와 전설에서도 오름 등과 같은 제주도의 자연지형이 한라산 본체로부터 떨어져나가 생성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편이다²¹⁾.

한라산은 거의 모든 제주도내의 마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규모와 위치를 갖추고 아울러, 제주도 지역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해되었다고 하겠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의 방위(方位)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는 고려시대 충렬왕 26년(1300)에 행정단위의 개편이 이루어져 제주목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14개 군현이 신설되었는데, 이들 군현이 각각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과 서쪽의 행정단위로 구분·파악되었던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²²⁾. 조선시대에도 한라산을 기준에 두고서, 북쪽은 제주목(濟州牧), 동쪽은 정의현(旌義縣), 서쪽은 대정현(大靜縣) 등이 각각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²³⁾. 혹은 산남(山南)과 산북(山北)으로 나누고, 산북(山北)은 제주목(濟州牧), 산남(山南)은 정의·대정현이 관할하는 지

21) 현용준, 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22) 『탐라지(耽羅志)』 제주 연혁조.

23) 『태종실록(太宗實錄)』 권31·33, 태종 16년 5월 정유(丁酉)·태종 17년 5월 갑진(甲辰)조.

역으로 각각 구분·파악하기도 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제주도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아 동부와 서부, 혹은 산북과 산남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그에 따라 지역 정서와 연고주의가 형성·추구되는 경우를 왕왕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도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남북을 나누어 편제한 남제주군(南濟州郡)과 북제주군(北濟州郡)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한라산이 제주도 지역 방위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인식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생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라산은 주민 생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지배 편제방식에서도, 공히 방위 구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이다.

한편, 한라산이 자리잡은 제주도(濟州道)는 남한(南韓)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한라산은 남한 지역 내에서 높이가 가장 높다. 때문에 제주도는 조선시대 초창기부터 이미 한민족(韓民族) 영역의 남방 경계 끝으로 주목받았고, 그 상징성으로 한라산이 내세워지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의 위치와 그 규모는 한라산으로 하여금 한민족 영역의 범위를 뜻하는 상징성을 띠게도 하였던 것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민족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활발하게 내세워지는 작금의 사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처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라산은 생업활동의 터전과 각종 특산물 산출의 자연환경을 갖추게 해 주었던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 주민은 3~7세기 무렵부터 목축을 활발하게 행하였다²⁴⁾. 특히, 고려시대 들어와서는 국가 수요의 상당량이 제주 말로 충당될 만큼 제주에서는 말(馬) 사육이 성행했다. 더욱이 제주 주민이 몽골족과 더불어 말 사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3세기 말부터는 동·서 아막(東·西阿幕)이라 일컬었던 탐라목장이 세계도처에 위치한 몽골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간주될 만큼 규모가 커 나아갔고, 제주도의 산과 들에는 말이 가득했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무렵부터 제주도의 말 사육은 제주도 전 지역, 즉 한라산 산간지대도 방목지로 삼고, 풀어놓아 기르는 방목방식도 함께 취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도 10개 소장(所場) 등의 국립목장이 한라산 산간지대와 중산간 지대에 걸쳐 설치되어 전국 말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등, 우마사육이

24) 김일우, 2000, 앞의 책, 149~187쪽.

민가와 관가에서 계속 성행해 나아갔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1973년의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 말이 1만3,100필인데, 이 가운데 70%가 제주도 산이었다. 이 수치는 제주도의 총면적이 대략 5억 5천만여 평으로 전국도의 1.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점유율이다.

1,000여 년 동안 이어진 제주도의 말 사육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도 나오게 할 정도로 왕성해져 나왔는데, 이는 한라산의 존재에 말미암은 바가 컸다.

제주도 지역은 섬 전체가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비탈을 이루고 있는 형상이며, 비교적 겨울철이 따뜻하고, 여름철은 시원한 편이다. 목초도 풍부하게 자생한다. 더구나 자주 쏟아진 폭우의 빗물이 한라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의 비탈로 급하게 흘러내려 만들어놓은 여기저기의 내는 말과 소가 합부로 넘나들 수 없는 담구실을 한다. 그리고 완만한 비탈을 이루면서 해발 1,950m에 이르는 한라산 지역은 말과 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나 나뭇잎의 싹트기가 해발 낮은 곳으로부터 정상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시들기는 정상으로부터 해안 낮은 곳까지 서서히 내려오기 때문에 풀이나, 나뭇잎의 생육과 시들기 이동이 뚜렷하다. 때문에 우마(牛馬) 주인은 절기에 따라 우마의 소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²⁵⁾.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의 존재 때문에 목축의 신(神)이 임한 곳으로 여겨질 만큼²⁶⁾, 천연적 방목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제주 주민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말 방목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말 사육의 성행은 경제력과 인구증가 등과 같은 사회규모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제주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이에 한라산은 제주 주민들에게 오늘날의 제주사회 형성에 모태로도 작용했던 생업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준 존재라고도 하겠다.

한편, 한라산은 해발고도가 1,950m에 달하다 보니, 아열대(亞熱帶) 식물부터 한대(寒帶) 식물까지 수직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식물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²⁸⁾. 여기에는 특산식물만 하더라도 75종으로 우리 나라의 어느 산보다도 많다. 더

25) 고헌민, 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102, 제주도청, 140~141쪽.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토산(土産)조.

27) 김일우, 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韓國史學報)』 15, 56~61쪽.

28) 강정효, 2003, 앞의 책, 102~136쪽.

옥이, 국용(國用)에 널리 쓰이기에 국가에서 거두어들이고, 주민생활에도 긴요한 특용작물도 상당수 분포되어 있다. 즉, 안식향(安息香)·이년목(二年木)·비자목(匪子木)·산유자(山柚子) 등의 열매와 목재는 약재나 향료, 혹은 재목으로 중앙정부에 진상품으로 바쳐지는 공물(貢物)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유용하게 쓰여졌던 한라산 지역의 특용작물이었던 것이다²⁹⁾. 또한 노죽(蘆竹)은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상당수 주민이 그 열매인 죽실(竹實)을 먹어 살아남았던 적이 있는 한라산 지역의 구황작물에 해당했다³⁰⁾.

특히, 비자나무는 목재로서도 매우 훌륭하며, 그 열매 비자는 구충제(驅蟲劑)·강장제·치질·기침 감기·황달 등에 약효가 뛰어나며, 또한 식용유·등불기름·머릿기름으로도 사용되는 등 다용도로 쓰여졌다³¹⁾. 제주도 비자나무는 한반도 육지부의 이식재 배와는 달리 자생으로 보이며, 그 열매가 고려시대 때부터 중앙정부에 진상품으로 바쳐졌고, 그것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일제(日帝)도 주민들에게 비자나무 열매를 주워가지 못하도록 해 전량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이러한 동안, 제주도의 비자림은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지역은 중앙정부의 공물대상이고, 혹은 전시체제하의 국용에 필요하였음과 아울러, 주민 생활에도 널리 유용했던 특용작물이 자라는 곳으로도 그 존재가치가 높았다고 하겠다. 이는 천연기념물 제374호 지정의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坪岱里) 비자림에서 엿볼 수 있다. 즉, 평대리 비자림 지대가 오늘날 제주도에서 가장 울창한 숲으로 손꼽을 수 있음과 동시에, 약 44만 8,000㎡(13만 6,000평)에 달하는 군락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또 하층구조의 양호한 발달 등은 오래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가의 관리·보존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한라산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한라산이 주민 생활 및 그 의식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이나, 여기에 올랐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임제(林悌)의 저서 『남영소승(南溟小乘)』이 가장 이르다³²⁾. 즉, 『남명소승』에는 과거 급제자 임제가 1578년에 한라산을 오르는 과정과 그 경관을 읊은 시 등이 실려있는 것이다.

29) 『예종실록(睿宗實錄)』 권3, 예종 1년 2월 갑인(甲寅)조.

30) 『경종실록(景宗實錄)』 권13, 경종 3년 7월 신사(辛巳)조.

31) 강정효, 앞의 책, 118~122쪽.

32) 제주문화원, 2000,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登漢拏山記)』, 나라출판, 13~33쪽.

이어 『남사록(南槎錄)』에는 1601년 제주안무어사(濟州按撫御史) 김상헌(金尙憲)의 등반기, 『와유록(臥遊錄)』에는 1609년~16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치(金緻)의 등반기,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는 1702년~1703년 사이에 걸친 이형상(李衡祥)의 등반기, 『탐라록(耽羅錄)』에는 1841년 이원조(李源祚)의 등반기 등이 수록되어 전하고, 조선후기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거두로 이름이 높은 최익현(崔益鉉)의 1875년 한라산 등반기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외국인으로 한라산을 처음 올라간 독일인 지그프리트 켄테(Siegfried Genthe)의 1901년 등반기와 아울러, 『탐라기행 한라산』에 실린 이은상(李殷相)의 1937년 등반기가 명성이 높다³³⁾.

이들 등반기에는 한라산이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식생을 갖추었고, 이에 더하여 장엄하면서도 신령스러운 선경(仙境)의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음, 이를 오르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케 했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도 독일인 켄테의 1901년 등반기에는 한라산의 해발고도가 1,950m에 달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지는 과학적 측량활동이 나타나 있으며, 이은상의 1937년 등반은 80명이나 산행에 나선 한라산 최초의 단체 등반이었다. 또한 이은상의 1937년 등반은 국토순례행사의 일환으로 한라산에 올라가는 행사의 원조라 하겠다.

옛적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라산은 명산(名山)이자, 영산(靈山)으로 그 존재가치가 높았으나, 이를 올라가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방관, 혹은 유배인 등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등반이 레저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그 효용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라산을 오르는데 애용되는 등산로 코스만 하더라도 다섯 개나 조성되는 한편, 등반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³⁴⁾. 즉, 1년 간 한라산 탐방객이 1980년에는 88,802명에 달했는데, 해마다 늘어나 2000년에 이르러서는 무렵 6배가 넘는 545,423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때문에 한라산 지역은 등산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유실·지반붕괴·식생파괴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이루어졌고, 이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남벽·서북벽 등산로 중심의 해발 1,700m 이상은 자연휴식년제, 즉 출입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치가 199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한라산이 사람들에게 명산이자, 영산으로 다가가 같이 호흡하는 존재임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33) 이들 한라산 등반기는 모두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에 수록되어 있다.

34) 한라산연구소(<http://www.jju.go.kr/ibbs...>) 참조.

하다.

흔히,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 이라고 한다. 이는 단지 지형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라산이 주민 생활에 깊게 자리잡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한라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통일지향을 뜻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백두산과 더불어, 남·북한을 뜻하는 상징성의 존재로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김일우)

4. 한라산의 고사찰(古寺刹) 존자암(尊者庵)과 수행굴(修行窟)³⁵⁾

1) 한라산 영실(靈室)의 고사찰 존자암

존자암은 영실 서북편 불래오름 남사면 능선에 자리한다. 존자암지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나온다. 제주목(濟州牧) 불우조(佛宇條)에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승(僧)이 도(道)를 닦는 모습을 닮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修行洞)이라 전해진다” 라고 기록돼 있다. 이 내용은 중종 25년(1530) 동서(同書)의 편찬 당시 기록이다. 효종 2년 제주에 어사로 왔던 이경억(李慶億)은 그의 시에 “천년 묵은 외로운 탑이 서 있는데,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 있다” 라는 글귀를 남기고 있는데, 이로 보아 그가 부임한 당시 존자암은 이미 폐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존자암의 설립에 대해 호사가(好事家)들은 대장경(大藏經) 법주기(法主記)의 제육존자(第六尊者) 발타라(跋陀羅<Bhadra>)와 구백나한이 거주했던 암자라 하여 남방불교 전래의 근원지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김상헌의 『남사록』을 재인용한 총암 김정(金

35) 존자암과 수행동(굴)은 한라산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불적(佛跡)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濟州牧) 불우조(佛宇條)에서 출발하여 여러 문헌에 전해 온다. 존자암은 발굴결과 13세기경에 만들어진 사찰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사찰 암자임이 밝혀졌다. 수행동(굴)은 존자암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굴 내부에 온돌방을 만들어 영하의 겨울에도 수행할 수 있는 제주도 용암동굴이 만들어 준 자연적인 특수한 형태의 수행장소로 주목된다.

淨)의 『존자암기(尊者庵記)』에 “존자암은 고·양·부 삼성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세워졌는데, 삼읍(三邑)이 정립된 후에도 오래도록 전해졌다”라는 내용을 증거로 들어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존자암에서 국성제(國聖祭)가 이루어졌고 선조 25년(1593) 이후에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김상헌의 『남사록』에 전해 온다³⁶⁾.

이렇게 문헌과 야사에 전하는 존자암은 발굴조사를 통해, 각 시설물의 축조수법과 중복관계, 그리고 층위분석에 의하면 이곳의 시설물은 크게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려 말~조선전기에 해당하는 건물지인데, 이곳에서는 모두 반듯한 판석을 사용하였으며 건물지에서 발견되는 유물도 인화분청과 일부의 청자편, 명문기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하나는 조선전기~중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와 시설물인데, 이곳에서는 자연석을 대강 치석한 활석을 사용하였으며 유물은 백자와 무문기와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존자암의 건물지와 부속시설은 모두 크게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석축평탄 대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축단은 존자암의 1차시기에 건축된 건물지와 부속시설물의 신축과 더불어 만들어졌다. 특히, 1차시기 중에 창건했거나 또는 중창 불사와 관련된 스님의 사리가 제4단의 부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차시기에는 전대부터 존속돼 오던 시설물 터전 위에 다른 시설물을 중건하였는데, 대략 건물지의 제1단과 2단 중앙에 각 1동의 건물과 제3단에 비각형태(국성제단)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 입구에 자리한 제1단 석축 내의 건물지는 현재 가람의 가장 낮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지 내부의 주춧돌의 배치상태로 보아 앞과 뒤로 뒷마루를 둔 선방지(法堂址)일 가능성이 있다. 제2단 평탄대지에 자리한 판석형 건물지는 가람이 중심에 있고 높게 쌓아 올린 석축시설 위에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자암터의 중앙부에 가장 안정된 위치에 있으며 같은 지점에 연속하여 중창된 사실로 보아 금당지일 가능성이 짙다. 사찰 북편의 제일 높은 제3단 대지에 자리한 정방형의 비각(碑閣) 건물지는 가람의 끝에 있고 각의 내부에 비석자리가 확인되므로 문헌에 전하는 국성제를 행하던 비각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단 대지에는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북서편에 보편적으로 안치하는 팔각주좌형태의 현무암제 세존사리탑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 앞에는 세 개의 계단을 둔 전정시설과 그 앞에는 왼쪽에 치우쳐 목조 소형 석탑이 자

36) 고창석, 1996,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31~36쪽.

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 내의 수원(水原)은 대웅전 바로 동편으로 연일 용천수가 흐르며 바로 밑으로는 돌로 만든 담수시설도 있다. 아마도 이 물이 있기에 사찰이 자리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³⁷⁾.

덧붙여 목탑지 부도(浮屠)에 대해 소략하면, 먼저 탑지는 금당지 남동편, 선방지 동편에 비교적 평탄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고 목탑의 중심주초석이라 생각되는 투공주초석(透孔柱礎石)이 확인되었다. 부도는 대체로 형식상 고려말기까지 올라가는 도내 유일의 부도로서, 팔각대석과 사리공(舍利孔) 시설은 보기 드문 예라 지적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존자암에서는 천여 점의 기와편(瓦片)이 출토되었다. 극소수의 완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훼손이 심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기와는 출토지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건물지의 소속시기를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명문기와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만호겸목사(萬戶兼牧使)' 명와(銘瓦)는 가장 제작시기가 빠른 것으로, 이 기와와 비슷한 제작연대를 가지는 기와로는 '천호부승석(千戶夫承碩)' 명와(銘瓦)를 들 수 있다. 이 두 명문와는 명문부를 장식하는 테두리선이 당초문대로 동일한 형태이다. 이들 명문와는 존자암지의 탑지추정지와 그 부근에서만 출토되었다. 또한 이들 명문와는 제주목관아지의 와적담장지와 수정사 금당지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임신조(壬申造)' 명와와 '천축개계(川丑開啓)' 명와는 모두가 비각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금당지에서 출토된 암기와에 '존(尊)' 명이 시문된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발굴한 사지(寺址)가 문헌에 전하는 존자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³⁸⁾.

평기와는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선조문 암·수기와는 비각지에서 원상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들 두 기와는 서로 암·수를 이루어 지붕에 세트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합을 이루었던 기와는 파상문 암·수기와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존자암지의 연대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로는 '□□이월수정선사대부 김중광 만호겸목사봉□□□(□□二月修正禪師大夫金仲光 萬戶兼牧使奉□□□)'라 쓰여진 명문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기와는 존자암지 초창기에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

37) 강창화, 1996,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157~168쪽.

38) 강창화·박용범, 1996, 「濟州道 出土 高麗後記 銘文瓦」,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157~180쪽.

정되는 탐지추정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고려말기 명문기와 중 하나이다.

제주도의 목사와 만호(萬戶)가 겸직했던 기간은 고려 충렬왕 27년(1301년)부터 조선 정종 2년(1398년)까지로 보고 있다. 만호가 하급군관으로 전락하는 성종 대에 와서 결국 분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만호겸목사' 명문기와는 고려말기(1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책과 관직명, 파견된 만호 김종광(金仲光)이란 인물만으로도 제주 불교사에 있어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사찰의 중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13~14세기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⁹⁾.

2) 한라산 영실의 수행굴

수행굴에 관한 고문헌의 기록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불우조의 존자암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재 한라산서령 기동유석여승행도상(在漢拏山西嶺 其東有石如僧行道狀)”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修行洞)이라 전해진다는 것이다. 원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을 중종 25년(1530년)에 증보하여, ‘신증(新增)’이라는 두 글자만 첨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원진목사의 『탐라지』에는 앞의 기록을 인용하며 원래 존자암은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옮겼는데 대정현 지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1601년 한라산을 올랐던 청음 김상헌 어사는 『남사록』에 “또 수행굴을 지났다. 굴속은 20여명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고승 휴량이 들어가 살던 곳이다. 칠성대(길가에 늘어 선 모습이 마치 북두칠성과 같다)와 ‘좌선암(坐禪岩)’이라는 돌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앉아 있는 모습과 같아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 있다.

판관 김치는 1609년 한라산을 등정한 기록으로 “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 하나가 있는데 수행동이라 한다. 옛날에 도승이 그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 부서진 온돌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702년 등정했던 이형상 목사가 『남환박물』에 남긴 기록도 있는데, “위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고 한다. 이는 옛 스님이 말한 팔정 옛 터인데, 이를 존자암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한 뒤, 홍유

39) 강창화, 1996, 「'修正禪師' 大 金仲光' 銘文瓦」,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186쪽.

순의 존자암개구유인문을 인용, “존자가 암을 짓기는 고량부 삼성이 처음 일어난 때 비로소 이루어졌고, 삼읍이 나뉘어진 뒤에까지 오래도록 전해졌다. …… 지금은 스님이 없고 헐린 온돌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몇몇 기록을 정리해 보면, 존자암의 연원은 삼성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고, 그 위치는 원래 영실에 있으며 그 주변에는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어 이 곳을 수행동이라고 했다. 또 여기에는 옛날 고승 휴량이 도를 닦았던 석굴이 있는데 곧 수행굴이며 굴 안에는 20여명 들어갈 만하고, 부서진 온돌 자리가 남아 있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수행굴은 이상에 열거한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칠성대, 좌선암으로 보이는 주변의 기암괴석, 그리고 부서진 온돌자국이나 그리고 30~4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동굴규모, 나아가 옛 선인들이 한라산을 찾는 등산로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재발견한 수행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옛 존자암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수행굴과 존자암의 관계는 물론 제주 최초의 불교유적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조명도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⁴⁰⁾.(강창화)

5. 제주도 동굴유적의 분포와 성격

동굴유적은 자연적인 동굴을 주거나 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유적을 말한다⁴¹⁾. 동굴은 전세계적으로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굴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다가 방어장소나 자연환경의 해악에 따른 피신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동굴유적은 석회암이 발달된 함경도, 평안도 및 충청도지방의 석회암동굴에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상원 검은모루동굴⁴²⁾을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 후반의 구

40) 강문규, 2003, 「한라산생태학술대탐사—고문헌에 나타난 수행굴—」, 한라일보, 2001년 12월 5일자, 제20면.

4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133쪽.

42)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북한문화유적발굴 개요』, 북한문화재조사서 제3책.

낭굴⁴³⁾조사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는 한편,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구석기시대를 벗어난 유적은 그 수에서 매우 적게 나타난다⁴⁴⁾. 또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유적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과 편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생활공간으로서의 거주지에 대한 연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달리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역으로 다수의 용암동굴과 해식 및 하식동굴이 섬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동굴을 이용한 유적수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제주도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주거지로 활용되어 온 동굴유적에 대하여 분포의 확인과 함께 유적들이 가지는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동굴유적과 관련해서는 한라산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는 동굴만을 다룰 수 없는 애매한 점이 내재되어 있고, 또 역설적으로는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환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주거 발자취를 무시해서도 제주도의 거주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할 우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인문 환경적 특성에서는 역시 인간이 중심축에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굴유적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동굴주거유적은 주로 해안지역에 위치한 동굴에 치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안지역의 동굴주거유적을 바탕으로 정리함으로써, 제주도에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동굴유적의 분포

육지부의 동굴 대부분이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석회동굴임에 비하여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동굴은 용암동굴과 해식·하식동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동굴은 신석기시대는 물론 현대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용빈도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⁵⁾.

43) 이용조·박선주, 1992, 「단양 구낭굴 발굴조사연구」, 『박물관기요』, 8, 단국대학교박물관.

44) 예를 들면, 함경도 지방의 대표적 청동기유적인 미송리유적을 비롯하여 신석기 후기의 강원도 춘천 교동유적과 부산 울리패총,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퇴적층위를 갖는 금곡동유적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장흥 탐진댐 수몰 지구의 오봉리 암음유적 등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넓은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동사면과 서사면, 그리고 급한 경사도를 보이면서 수계가 발달한 남사면과 북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동굴유적은 총 45개소에 이른다. 여기서는 동굴유적을 크게 서북사면, 동북사면, 남사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동굴유적을 지역별로 보면, 서북사면에 6개소, 동북사면에 9개소, 남사면에 30개소로 나타난다.

(1) 서북사면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고 제주시에서부터 대정읍 하모리 부근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동굴은 해안저지대에 위치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간대의 단구에 형성된 소규모의 용암동굴도 이용하고 있다. 유적으로는 고산동굴유적, 금능한들굴유적, 관전동동굴유적이 있다.

(2) 동북사면

서북사면과 마찬가지로 넓은 평탄대지를 이루는 지역으로 대략 표선리에서 제주시에 이르는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장굴과 김녕사굴이 자리하는 지역이며 다수의 동굴지대가 분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촌리 바위그늘유적, 김녕 깨내기동굴유적 및 신천 한뫼굴유적이 있다.

(3) 남사면

안덕면 산방산 부근에서 남원읍 경계지점까지의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급한 경사도를 보이는 한편 하천과 해안단구도 잘 발달된 지역이다. 많은 유적들이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의 하천변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의 해식·하식동굴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과 신례리 바위그늘유적, 창고천 바위그늘유적군을 들 수 있다.

45)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북촌리 유적과 김녕 깨내기동굴 유적이 있다. 북촌리 유적에서는 유물이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철기시대 및 삼국시대에 이르는 층위상황을 보이고, 김녕 깨내기 동굴유적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물상과 패총을 형성하고 있다. 유적이 자리한 주변에는 대단위의 마을 유적과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유적과의 관계를 통해 동굴유적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여겨진다.

〈표 2〉 서북사면의 동굴유적 현황표

지역	유적명	입지	규 모				형 유 성형	유물 분포 범위	출토유물	이용시대
			총 길이	입 구 부						
			길이	높 이	형 태					
서 북 사 면	고산동굴 유적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100m 이상	6.5m	1.2m	반원형	용암동굴	입구부 ~ 140m	토기류, 동물뼈	신석기, 삼국
	한림동방동굴 유적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용암동굴	입구부	석기류	청동기
	협재리 동굴유적	해안에서 1km 내외 평탄대지	.	.	.	반원형	용암동굴	입구부 ~ 200m	토기류, 동물뼈류, 어패류	철기
	금능리 한들굴 유적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100m 이상	8.0m	3.0m	반원형	용암동굴	입구부 ~ 24m	토기류, 석기류, 패각류, 동물뼈류	신석기 ~ 통일신라
	관전동굴유적	조간대 단애 하단	3~4m	4.5m	0.6~0.7	반원형	해식동굴	입구부	토기류, 패각류	삼국 ~ 통일신라
	가문동굴유적	조간대 상부 경사면	10m 내외				용암동굴	입구부	토기류, 패각류	삼국 ~ 통일신라

〈표 3〉 동북사면의 동굴유적 현황표

지역	유적명	입지	규 모				형 유 성형	유물 분포 범위	출토유물	이용시대
			총 길이	입 구 부						
			길이	높 이	형 태					
동 북 사 면	김녕 케내기 동굴유적	해안에서 1km 내외 평탄대지	200m	9.2m	.	반원형	용암동굴	입구 ~ 약 55m	토기류, 석기류, 동물뼈류, 패류	신석기 ~ 철기
	김녕 묘산봉 동굴유적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30m 이상	5.0m	2.3m	반원형	용암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동물뼈류	철기 ~ 삼국
	온평리 동굴유적	해안에서 1km 내외 평탄대지	15m 이상	2.5m	3.0m	반원형	용암동굴	전면	토기류, 동물뼈류	철기 ~ 통일신라
	신천리 동굴유적	해안에서 1km 내외 평탄대지	100m 이상	5.4m	.	반원형	용암동굴	함몰부 및 입구 ~ 21m	토기류, 패각류, 어패류	신석기 ~ 철기
	억수동 바위그늘 유적1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2.9m	6.2m	1.4m	반원형	용암동굴	전면	토기류	신석기
	억수동 바위그늘 유적2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3.2m	5.2m	1.3m	반원형	용암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
	억수동 바위그늘 유적3	해안에서 1km 이상 평탄대지	1.4m	5.5m	1.2m	반원형	용암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

〈표 4〉 남사면의 동굴유적 현황표

지역	유적명	입지	규모				형성유형	유물분포범위	출토유물	이용시대
			총길이	입구부						
				길이	높이	형태				
남사면	색달동 동굴유적	해안 절리 단애면	22.5m	5.0m	2.2m	반원형	해식동굴	입구~6m	토기류, 어패류	철기~통일신라
	대포동 동굴유적	해안에서 1km 내외 구릉지대	5.4m	1.5m	0.5m	반원형	용암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청동기~철기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1	하천변 절리면	4.8m	1.0m	2.4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석기류	철기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2	하천변 절리 단애면	2.2m	3.5m	1.5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석기류	철기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3	하천변 절리 단애면	1.2m	2.5m	1.5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삼국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4	하천변 절리 단애면	3.5m	1.3m	2.1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삼국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5	하천변 절리 단애면	2.0m	3.2m	1.0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삼국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6	하천변 절리 단애면	1.0m	3.0m	2.0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삼국
	상예동 바위그늘 유적7	하천변 절리 단애면	1.0m	3.0m	1.2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토기류	철기~삼국
	색달동 바위그늘 유적1	해안공유수면의 절리 단애면	3.3m	2.0m	1.7m	반원형	해식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삼국~통일신라
	색달동 바위그늘 유적2	하천절리 단애면	2.1m	3.2m	2.8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토기류, 어패류	철기
	중문동 바위그늘 유적	하천절리 단애면	2.2m	1.0m	1.0m	반원형	하식동굴	전면	.	.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1	해안절리 단애면	3.5m	4.0m	1.8m	반원형	해식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2	해안절리 단애면	2.0m	8.0m	1.8m	반원형	해식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3	해안절리 단애면	2.0m	6.0m	2.0m	반원형	해식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통일신라

[〈표 4〉 계속]

지역	유적명	입지	규모				형상 유형	유물 범위	출토유물	이용시대
			총 길이	입구부						
				길이	높이	형태				
남 사 면	한남리 바위그늘 유적	해안에서 1km이상 구릉부	2.3m	3.5m	1.7m	반원형	용암 동굴	전면	토기류, 동물뼈, 패각류	.
	신례리 바위그늘 유적	하천변 절리 단애면	4.2m	8.6m	2.4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철기
	하례리 바위그늘 유적1	하천변 절리 단애면	5.3m	7.5m	4.0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철기
	하례리 바위그늘 유적2	해안에서 1km이상 평탄대지	2.8m	10.0m	2.2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동물뼈류	철기
	창고천 바위그늘 유적1	하천변 절리 단애면	3.0m	7.6m	3.5m	반원형	하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철기
	창고천 바위그늘 유적2	하천변 절리 단애면	4.7m	11.0m	4.7m	반원형	하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철기
	안덕계곡 바위그늘 유적1	하천변 절리 단애면	7.0m	11.0m	2.8m	반원형	하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삼국~ 통일신라
	안덕계곡 바위그늘 유적2	하천변 절리 단애면	0.5m	6.5m	2.8m	반원형	하식 동굴	전면	토기류, 석기류	삼국~ 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4	해안절리 단애면	2.5m	8.1m	2.2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 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5	해안절리 단애면	2.7m	5.4m	2.2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 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6	해안절리 단애면	3.8m	17.0m	2.5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 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7	해안절리 단애면	2.7m	15.0m	3.0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 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8	해안절리 단애면	3.8m	11.0m	3.1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 통일신라
	하례동 바위그늘 유적9	해안절리 단애면	5.8m	2.8m	2.4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삼국~ 통일신라
대포동 바위그늘 유적	하천과 해안 교차지점	6.5m	5.5m	2.2m	반원형	해식 동굴	전면	토기류, 동물뼈류	철기~ 통일신라	

2) 동굴유적의 입지 및 유형

도내에서 확인되는 동굴관련유적은 크게 동굴유적과 바위그늘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바위그늘유적은 대부분이 동혈(洞穴)을 이루고 있고, 화산활동이나 해식 및 하식에 의해 형성된 것들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모두가 동굴의 범주⁴⁶⁾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동굴의 입지, 유적의 규모 혹은 유적 내에서 유물의 집중분포 위치, 출토유물, 야외유적 및 유물산포지의 공반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4개의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I 유형

해안에 위치한 유적으로 대부분이 해식에 의해 형성된 동굴유적이다. 이 유형은 해안선에서 약간 들어간 절벽의 중턱이나 조간대가 형성된 곳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유적 주변에 유물산포지가 존재하고 있고 용천수가 풍부하며 양질의 토양이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규모는 15㎡ 이하의 소규모이며 출입구 방향은 대부분 남향이지만 일부가 북서향을 취하는 것도 있다. 유물은 동굴의 입구를 중심으로 하여 입구의 앞과 동굴내부에 빛이 도달하는 범위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어패류가 확인된다. 이 유형은 대부분이 중문동을 중심으로 남사면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 해안단구가 형성된 서북사면의 해안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서귀포시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과 하예동 바위그늘유적군을 들 수 있다.

(2) II 유형

이 유형은 주로 하천의 절리단애면에 위치하며 용암이나 하식에 의해 형성된 유적으로 해안인접 하천변과 해안에서 1km 내외의 하천변 절개지에서 확인된다. I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5㎡ 정도의 소규모 동굴유적으로 출입구는 거의 남향을 하고 있다. 유물의 집중적인 분포위치는 유적의 입구부를 포함하여 동굴의 전면부이며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석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적 주변에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유적으로는 하례리, 신례리, 창고천 바위그늘유적군이 있다.

46)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지침』, 17쪽.

(3) III유형

이 유형은 해안에서 1km 내외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해안과 중산간지대의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다.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동굴이 대부분이다. 규모는 15m² 이상으로 비교적 넓으며 형태는 반원형을 취하고 있다. 유적주변에는 양질의 토양이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하천과 용천수가 위치하고 있다. 유물의 집중분포위치는 유적의 입구부에서 빛이 비취지는 부분까지이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이나 동물뼈와 어패류도 거의 균일하게 확인된다. 또한 주변에는 대단위 야외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서는 북촌리 바위그늘 유적, 김녕 캐내기동굴, 신천 마장굴, 대포동 오덩이케유적을 들 수 있다.

(4) IV유형

이 유형은 해발 1km 이상의 위치에 자리하는 유적으로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이 용암동굴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적지 주변에는 넓은 목초지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습지가 소규모로 확인된다. 동굴의 규모는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의 크기가 작다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내부공간은 15m² 내외로 넓지 않은 것과 이보다 훨씬 넓은 동굴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은 토기편과 동물뼈 위주로 확인되며, 유적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물의 집중적인 분포위치는 동굴의 입구부에 밀집되어 확인되며 일부는 유수(流水)의 유입으로 인해 동굴의 깊은 곳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유적으로서는 고산동굴유적, 선흥리 복수물굴유적, 김녕리 묘산봉동굴유적 등이 있다.

3) 동굴유적의 성격

제주도의 동굴유적은 신석기시대는 물론 야외주거지가 축조되고 대단위 야외취락이 형성되는 삼국시대(제주도는 탐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이용되어 왔다⁴⁷⁾. 아울러, 동굴유적은 산간내륙에서 하천변 및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부분의 동굴유적은 북서풍을 피할 수 있고 입구가

47) 제주도의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어유리 벌렛못동굴유적과 친자연바위그늘유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연대상과 지질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대체로 남향을 취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적의 형성범위는 동굴의 입구부 일부와 동굴내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는 범위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분류된 4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동굴유적이 가지는 성격 중 기능과 용도 등에 대한 이용적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동굴유적은 크게 주거용과 특수목적용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주거용으로서의 이용

여러 동굴유적 중 주거용은 III유형과 IV유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유적으로는 북촌리 바위그늘유적과 묘산봉 동굴유적이 포함된다. 이들 유적주변에는 넓은 평탄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지 상에는 넓은 목초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일부 유적의 근처에는 습지와 용천수가 위치하고 있어 음용수 취득은 물론이고 사냥에도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적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토기가 차지하며 일부는 동물뼈와 어패류도 확인된다.

유적주변에는 해당유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야외유적이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지 않는 단독의 유적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북촌리유적 최하층인 경우에는 신석기시대층으로 다수의 점렬문계 토기편이 출토되며 다량의 패각편과 일부 동물뼈가 확인된다. 또한, 유적 내에는 장기간에 걸쳐 정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토기편, 갈판·갈들, 공이 및 흙돌, 탄화된 개산초열매 등이 확인된다. 묘산봉 동굴유적에서는 제주도 탐라시대 전기의 유적으로 다수의 토기편과 동물뼈가 확인되며 일부는 소량의 패각도 출토되었다. 이들 유적이 주거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출토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유물 중에서도 저장용구인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 일부 공이석기와 흙돌이 확인되는 점, 견과류를 분쇄시키는 갈들·갈판의 존재하는 점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북촌리유적 최하층의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유적지는 제주도 동부해안과 동남부해안에서도 소규모의 유물산포지가 다수 분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촌리유적 주변에 뚜렷하게 주거지로 보여지는 야외주거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는 없다⁴⁸⁾.

48) 제주도의 해안과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에까지 신석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야외주거지가 확인될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신석기시대 단계에서는 일부 야외주거지를 축조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소규모 수렵채집단계의 집단의 경우는 현재 확인되는 동굴유적만으로도 충분히 주거용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와 탐라시대에는 이미 야외취락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주거용으로서의 동굴에 대한 활용도는 많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냥이나 원거리 이동과정에서 중간 거점지나 사냥을 위한 임시 캠핑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2) 특수목적용으로서의 이용

제주도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에 대단위 야외주거유적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의 유물산포지나 패총도 제주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굴유적 I, II, III유형이 이들 대단위 야외주거유적이나 유물산포지와 관련되어 그 수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청동기시대의 대단위 야외주거지가 조성되는 상황은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나 이동과정에서의 거점지 또는 사냥을 위한 캠핑유적으로서의 이용보다도 야외취락과 관련된 특수목적용을 띤 용도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이후의 동굴유적은 야외주거유적과 관련하여 무덤, 공동제의(共同祭儀) 장소, 어로채집 후의 채집물 정리장소, 도구나 음식물의 공동보관창고, 병자 또는 죄인의 격리처, 대피소 등으로 이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I유형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상예동 바위그늘유적군, 하예동 바위그늘유적군 및 색달동동굴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주변에는 유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야외주거유적과 유물산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은 해안선이 발달된 조간대나 어족자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 소규모의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동굴유적 내부에 퇴적된 문화층이 아주 얇거나 미미하고, 확인되는 유물 또한 토기류와 어패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들 동굴유적은 어로와 관련된 대피소와 어로도구의 보관소, 어획물을 집하장소 등의 용도로 이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II유형은 I유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소규모의 바위그늘유적으로 주로 하천변의 단애면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주변에서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과 공이석기, 흙돌과 같은 석기 등이 대부분이다. 이 유형은 입지적 특성에서 보듯이, 하천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범람시에는 생활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출토유물도 1차 가공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응용수를 위한 취수 관련장소나 채집물의 1차 정리장소 등으로 이용되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예동 바위그늘유적 2호에서는 완형의 고내리식토기 1점과 인골편 등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변에서는 곡옥(曲玉) 등이 유물도 수습된 상황으로 보아 무덤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유형은 대부분이 용암동굴을 이용한 유적으로 해안을 조망하면서 내륙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 특히 야외주거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내의 문화층은 여러 시대에 걸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고 출토유물 또한 다량의 토기류와 동물뼈류, 어패류가 확인된다. 이 유형은 동굴이 가지고 있는 항온·항습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안과 내륙에서 획득된 음식물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판단된다. 특히 신천리 한뫼케굴유적인 경우는 동굴내부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장용구인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또한 패각의 채취에 필요한 전복체 빗창과 다량의 전복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채취물의 정리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김녕 케내기동굴유적 입구부에서는 다량의 동물뼈편이 확인되었는데 두개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동물뼈의 비율보다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의(祭儀)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외에, 천재지변시의 임시적 대피처나 병자의 격리처로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동굴주거 유적의 유형별 특성

제주도의 동굴유적은 유적의 입지, 출입구의 방향, 유물의 집중분포 위치, 야외유적의 공반관계를 토대로 할 때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유추해 볼 때,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에는 주로 Ⅲ형과 Ⅳ유형이 주거용으로 이용되었고, 야외주거지가 축조된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야외 유적지와 관련하여 I, II, Ⅲ유형이 정주거지가 아닌 특수 목적용으로서 무덤 및 제의장소, 획득물의 분류 및 도구의 공동보관장소, 혹은 사냥의 거점지나 격리처 등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된다.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동굴유적이 가지는 역할과 용도 등에 대한 분석이 좀더 구체화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김종찬)

6. 맺음말을 대신하여 :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 유산적 가치

이상과 같이,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인문 환경적 특성을 논의해 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강조하기보다는,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선정은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이 빼어남과 동시에 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뛰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감안할 때,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문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이 가지는 자연 유산적 가치는 제주도민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자취나 문화활동의 결과와 관련지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한라산과 주변지역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체(意味體)로서의 가치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현시점에서도 '한라산' 혹은 '한라'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배경만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이들 대표주자격을 몇 개만 나열해 보면, 지역신문사인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대표적 주류인 '한라산 소주', 가장 최근에 탄생한 학교로서 '한라초등학교'와 '한라중학교' 등은 바로 한라산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가장 잘 부각시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탐라문화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한라문화제'로 인식되고 있던 사실도 더불어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은 도내적(島內的)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도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은 물론 경제활동의 모태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선사시대로부터 한라산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마을(취락)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거주지의 방위를 결정함은 물론이고, 가옥 한 동(棟)을 지을 때도 남향 또는 남동향 등의 방위결정은 항상 높게 솟아있는 한라산이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한라산은 사람들이 제주도 내 여러 지역으로 자유롭

게 이동하여 설촌(設村)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한라산에 한라산신이 항상 거주하고 있다는 의식도 지녀왔다.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라산을 영산(靈山)으로 받아들여온 것이다. 역사 시대로 들어와서는 꾸준히 한라산신제를 지내왔는데,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한라산신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려 함을 뜻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한라산의 산세가 약해지는 주변지역은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 왔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 진상할 목적으로 다양한 약재와 특산물을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서 채취하였으며, 특히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말과 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영목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걸쳐 1960~70년대까지는 여러 마을의 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왔다. 더불어,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한라산 주변지역이 표고버섯을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 그것은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이 표고버섯 생산에 필요한 자목(子木)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또한 서늘한 기후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도외적(島外的)인 입장 또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해서는 한라산이 남한지역을 상징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분단국가의 통일을 지향하는 상징적 존재로서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잘 대변하고 있듯이, 한라산과 백두산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미를 초월하여 각각 남한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상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은 심미적·경관적·관광적 측면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한라산은 대한민국 내의 최고봉으로 국민들 모두가 즐겨 찾는 등반대상인 동시에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되는 자연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환희를 제공함은 물론, 정상정복의 만족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환희와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은 단순히 한라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라산 정상부를 벗어난 주변지역 중에서도 특히 영실기암, 왕관릉, 수악계곡, 탐라계곡, 돈네코 유원지, 윗세오름, 물чат오름, 사라오름, 어승생악, 성널오름, 물장을 등과 같이 방문객들이 탐방할 수 있는 곳은 많다. 이들은 한라산으

로 향하는 길목 요소 요소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도중에 한두 군데를 거치거나 적당한 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경관적 특성이 제주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화산지형의 결정체들이기에 심미적·관광적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은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피사체(被寫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은 1966년 10월에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라 하여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었으며, 1970년 3월에는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문화재나 국립공원으로서의 지정은 그만큼 뛰어난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여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 결과 한라산을 에워싸는 주변지역의 자연은 제대로 보존되었으나, 한라산 백록담과 정상부는 5개의 등반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답압(踏壓)을 이겨내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것은 1994년 7월부터 시행된 한라산 휴식년제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한라산에 출입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치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자원의 복원력을 극대화시켜 보려 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해온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선조들의 생활 문화적 가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 문화적 가치는 실제로 활용했던 장소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라산 주변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존자암과 수행동(수행동굴)이다. 존자암은 사찰유적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13세기경의 유적이 밝혀졌다. 존자암의 위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로서 표고로 볼 때 1100m 지점이다. 이 존자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시대 대표적 문헌의 하나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수행동은 존자암과 같이 승려들의 수행과 참선을 하던 장소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이 유적은 표고 153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존자암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적이다. 수행굴 자체는 용암동굴로 약 28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발견될 당시 동굴 안쪽에는 온돌방 형태를 취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따라서 승려들이 한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꾸며졌을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 이 수행동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현 단계에서는 사실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존자암과의 관련성이나 유적의 정확한 특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자암보다도 한층 더 이른 시기의 유적지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은 용암동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동굴들은 그나마 발굴조사나 유물수습이 많이 행해진 편이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의 동굴들은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거의 행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앞으로 이들 동굴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행해진다면, 동굴유적과 유물을 통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생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의 영적인 존재이자 정신적인 의지처로서의 기능을 다해 왔으며, 그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이루는데 매우 소중한 공간이 되어 왔다. 더불어 한라산은 제주문화의 형성에도 중요한 모티브가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한라산과 제주도민과의 관계는 수세대가 아니라 수 천년 동안 누적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보다도 도민생활과 지역문화와의 결합도가 높은 자연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정광중)

History and Culture of Mt. Halla and its Vicinity

Jeong Kwang-Joong

Professor of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ang Chang Hwa

A Section Chief of Jeju Cultural Properties Laboratory

Kim Il Woo · Kim Jong Chan

Jeju Cultural Properties Laboratory

1. Huma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t. Halla and its vicinity

Mt. Halla means a lot to the people of Jeju Island. It is not only a living ground but also a spiritual pillar they rely on. As such, the people of Jeju say, 'Mt. Halla is Jeju Island and Jeju Island is Mt'. Halla. This expression reflects how Mt. Halla is itself revered by the people of Jeju as well as how it serves as a foundation on which they lead their everyday lives.

Jeju Island was formed by volcanic activity and Mt. Halla, high at the center of the island, dominates its landscape. From Mt. Halla, gentle slopes stretch down to the coastal areas. This characteristic has a great impact on the living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islands residents. Since the pre-historic age, the people of Jeju Island have occupied the middle range of the mountain and coastal areas, creating villages and farms and relying on the clean sea for food and for other activities. Jeju Island is located off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East China Sea. It faces Japan (Kyushu) to the east, China to the west, Japan (Ryukyu Archipelago), Taiwan and the Philippines to the south, a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north. Therefore, Jeju Island has served as a transportation hub linking islands to islands, and islands to the continent since the pre-historic age.

The total area of the Jeju Islands is 1,831.6km², comprising 1.84% of Korea land mass

with a population of 547,209 (186,707 households, with more females than males) as of 2002. Recently, population is concentrating on Jeju City because Jeju City excels in its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education, administration, business, and cultural amenities.

Communities around Mt. Halla total 960ha, beneath sea level of 400m. Since there have been little human activity above the 400m level, the mountain has been well preserved without serious pollution or degradation. Transportation around Jeju Island is heavily dependent on roads (82% of roads are paved) with four national highways and two provincial roads a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eight provincial roads and 1,918 roads in Jeju cities and counties. It is a recent trend that major educational, industrial, and cultural facilities are moving to areas of higher elevation (e.g. the middle range of the mountain).

2. Mt. Halla and its residents from a historical viewpoint

Mt. Halla has been called Mt. Halla from the late 14th century as far as can be confirmed. Regardless of the mountain's name, however, Mt. Halla has been the living foundation of the Jeju people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Mt. Halla has been regarded as a guardian, which blesses the people of Jeju while punishing those who harm the island and its inhabitants. In other words, Mt. Halla itself was and is God to Jeju people and they have worshiped it since before ancient times.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worshiping of the mountain by the Jeju people and started to pay official tributes to the mountain. This national ritual continued until the Chosun Dynasty.

Mt. Halla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iving patterns and mentality of the Jeju people. Mt. Halla, tall and wide, is located in a position viewable from any place on the island. Because they believed their ancestors emerged from Mt. Halla, the people of Jeju thought of Mt. Halla as their mothers womb. Mt. Halla means so much that people find their position and direction based on their relation to it. The size and significance of Mt. Halla made it one of three spiritual mountains in Korea.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on Jeju Island are centered around Mt. Halla. Jeju

Island is deemed to be the best place for grazing and some people believe the god of stock farming endowed it. Many people have made their living growing horses in the expansive grass fields around Mt. Halla, and in turn, horses helped the people to expand their society and economy, making Jeju Island what it is today. At the same time, many industrial crops indigenous to Mt. Halla were so valuable that they were once tribute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ural habitat of Torrey Forest (Pyeongdae-ri, Gujwa-eup, Bukjeju-gun) has long been protect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its biological value. The forest is now known to be the biggest natural habitat of torreya with a sound lower layer.

Those who climb Mt. Halla cannot but wonder at the beauty of it. Before modern times, there were few people who climbed Mt. Halla. Mountain climbing, however, has recently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leisure activities as people learn about the benefits of hiking. Reflecting these changes, five hiking trails have developed with the explosion of annual visitors. Consequently, the environment of Mt. Halla centering around these hiking trails has been damaged. To restore Mt. Halla, parts of the mountain have been closed for several years before making it accessible to the public. This system was introduced on July 1st, 1994 and continues until today. This is to help maintain the significance of Mt. Halla as a spiritual and celebrated mountain.

As stated earlier, Mt. Halla is Jeju Island and Jeju Island is Mt. Halla to the people of Jeju. This is not just for geological reasons but also because of the relationship they share. People of Jeju Island feel the existence of the mountain in their everyday life. Further, Mt. Halla has symbolic significance to all Koreans, who wish to see their country reunified again, as expressed in the slogan, From Mt. Baekdu to Mt. Halla.

3. Settlements in Cave Sites and Temples on Mt. Halla

1) Significance of Jonjaam and Ascetic Cave on Mt. Halla

Jonjaam and Ascetic Cave are the most representative of Buddhist relics. A couple of writings are proof of Buddhist activities on this mountain. The earliest literature on this is Donggookyeojeunglam (Travel Sketches of the East Country). The Jonjaam

Excavation project confirmed it was built in the 13th century and it is the temple built at the highest elevation in Korea. Ascetic Cave is closely associated with Jonjaam. It is found that ondol rooms were built inside lava tube caves so that monks continued ascetic exercises in the winter, utilizing the natural features as protection from the elements.

Based on literature, unauthorized history, and excav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facilities of Jonjaam were built in two different time periods. Construction methods, overlapping parts between the facilities, and layers also support the fact that it was built in two different time periods. Facilities presumed to be built betwee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early Chosun Dynasty used square stone slabs. Relics found there are mostly Inhwabunchang, fragments of celadon porcelain, and Myungmoonki. Its main building and other facilities built during the early to middle Chosun Dynasty used trimmed stones and remnants found there are white porcelain and tile fragments.

The main building and subsidiary facilities were constructed on a wide stone field with four platforms. All shafts were constructed along with the main building and other facilities during the first construction phase. It is presumed that Buddhas relics are preserved in pagodas on the forth platform. During the second phase of construction, some other facilities were added: one building each on the first and second platform and a monument like architect on the third platform. There are many signs that lead to the assumption that the Ascetic Cave was the place where monks of Jonjaam practiced austerities: records in literature, fantastic rocks and stones, ondol fragments, the size of the cave (which can accommodate 30 to 40 people), and its location (near hiking trails).

Comprehensive research will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cetic Cave and Jonjaam.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 there will be new light cast on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Buddhism on Jeju Island.

2) Distribution and Features of Cave Sites

In Jeju cave sites, many natural and artificial remains have been found, contributing to the restor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rehistoric age. As identified, cave sites served different functions: dwellings, tombs and storage of shells. As Jeju Island

was formed by volcanic activity, a number of lava caves and marine caves are located throughout the island. These sites have been occupied and used by people from the Neolithic Age until now.

Based on excavated objects, it is assumed that people occupied caves as settlement from the Neolithic Age to the latter part of Tamra period. The use of caves has changed according to times and the caves locations.

During the Neolithic Age, caves located inland away from the seashore were put into use. By the Bronze Age, people used caves located a little closer to seashore than in the Neolithic Age. By the earlier part of the Tamra period, people used caves located both inland and along the coast, but in the latter part of this period, most caves used by people were located on the marine terrace. In the Neolithic Age, while coexisting with open-air sites, cave sites were the life center and dwellings of Neolithic people, and other sites appearing on the field are assumed to indicate their range of activities. Field sites used as dwellings did not appear until the Bronze Age. Cave sites from the Bronze Age have a thin sedimentary layer and only a few excavated artifacts. This period is thought to be the transitional period where dwelling shifted from inside caves to outside the caves. There had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ave sites during the earlier part of the Tamra period with field sites spreading all over the island, an extension of cave use from the past period. In the latter part of the Tamra period, the number of cave sites decreased and people moved closer to the seashore. Jeju Island was at that time known as the nation of Tamra, and most of its hamlets were built along the coast. Similarly, cave sites used during the period are also found on the marine terrace. The dwelling function of cave sites had been lost with the prevalence of large-scale hamlets and other field sites from the Tamra period. Included among the field dwelling sites, cave sites are considered to be used as a special facility for purposes such as rituals, tombs, temporary shelter for hunters, storehouses, and shelter related to fishing.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 『탐라지(耽羅志)』
- 강문규, 2001, 「한라산생태학술대탐사—고문헌에 나타난 수행굴—」, 한라일보, 2001년 12월 5일자, 제20면.
- 강정식, 2002, 『제주도(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효, 2003, 『한라산』, 돌베개.
- 강창화, 1996,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강창화·박용범, 1996, 「濟州道 出土 高麗後期 銘文瓦」,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강창화, 1996, 「'修正禪師大夫金沖光' 銘文瓦」,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고광민, 1998, 「제주도 마소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 102, 제주도청.
- 고창석, 1996, 「존자암의 역사적 배경」,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 김일우, 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韓國史學報)』 1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북한문화유적발굴 개요』, 북한문화재조사서 제3책.
-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지침』.
- 서귀포시, 2001, 『서귀포시지』(하권), 서귀포시.
- 이음조·박선주, 1992, 「단양 구낭굴 발굴조사연구」, 『박물관기요』, 8, 단국대학교박물관.
- 정광중, 2004, 「시문 —한라산 예찬론—」, 제주일보, 5월 17일자, 제18면.
- 제주문화원, 2000, 『옛 사람들의 등한라산기(登漢拏山記)』, 나라출판.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제주시의 옛터』, 제주시.
- 제주도, 1997,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제주도, 2001, 「제주행정지도」내〈도로현황〉.

한라산연구소(<http://www.jeju.go.kr/ibbs...>) 참조.

현길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현용준, 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